권역별 대입 수시 지원전략 마련

도교육청, 전주 등 도내 6개 시 지역서 12~19일 진행
완주·진안 등 8개 군은 내달부터 10월까지 예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19일까지 권역별 수시 지원전략 입시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세부 일정은 △전주는 12일 오후 2~5시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 △군산은 17일 오후 7시~8시 50분 군산교육지원청 별관 시청각실 △익산은 19일 오후 2시~3시 50분 익산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정읍은 17일 오후 7시~8시 50분 정읍교육지원청 3층 시청각실 △남원은 16일 오후 7시~8시 50분 남원교육지원청 시청각실 △김제는 17일 오후 6시 30분~8시 20분 김제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 등이다.

이 설명회는 고3 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전북대 입진학지도지원단 연수지원팀 강사들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강사 등이 참여,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대비 전북권 및 수도권 대학의 지원 전략 방안을 안내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6개 시 지역 입시설명회에 이어 8개 군 지역에서도 지역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9~10월에 순차적으로 입시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권역별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지역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14개 시군에서 입시설명회를 실시해 지역 간 진학 정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8일 새만금 세계잼버리 행사에 참여한 방글라데시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주대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가운데 대원들이 학생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전주대, 새만금 잼버리 JJ 지원팀 구성

방글라데시 스카우트 대원·지도자 등 참가자들 환영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 참여한 방글라데시 대원과 지도자 등 참가단이 본교 기숙사에 입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지난 8일 서둘러 새만금 잼버리 JJ 지원팀을 구성, 행안부와 전라북도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행사가 전북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전 및 의료, 편의시설 제공 등에 주력했다.

이날 황인수 부총장과 이덕수 총무처장을 포함한 30명의 지원팀은 버스에서 내리는 방글라데시 참가단을 환영하고 숙소까지 안내했다. 특히 지원팀은 이른 새벽부터 나와 할랄 음식 및 과일 뷔페 제공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에 참여한 선교봉사처 이범수 실장은 "할랄 음식을 찾는 대원들에게 음식 구분을 알려줬으며, 갑작스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밝고 건강한 표정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방글라데시 대원들은 전주대의 대응과 편의시설 등에 만족감을 표했다. 방글라데시 스카우트 본부 직원인 모하마드 마흐무둘 하크(Mohammad Mahmudul Haque)는 "전주대학교 구성원들의 따뜻한 환대와 도움에 방글라데시 대원 모두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황인수 부총장은 "다양한 나라와 문화가 만나 소통하는 특별한 장소로서 기억될 전라북도와 전주대학교가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전주대학교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생성형 AI 수업활용 방안 모색 |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콜로키움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9일 전주평화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제8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은 정책연구소가 매월 발간하는 교육동향 분석 보고서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동향 및 통계를 분석해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생성형 AI의 수업활용 방안, 사례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생성형 AI의 수업활용 방안에서는 ChatGPT를 포함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교육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성형 AI의 발전 방향과 특징 및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 실제로 학교 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교사들이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봤다.

또한 생성형 AI의 균형잡힌 활용을 위해 학생이 기술의 주체자가 되도록 지원하고,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인간과 학습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등을 제안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9일 전주평화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제8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어 사례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에서는 유네스코에서 추진 중인 문화예술 기반의 지속가능성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국외 사례와, 우리 지역 예술가와 문화 기반을 바탕으로 국제교류를 진행 중인 전주멜버른 문화예술 국제교류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에서는 2022년 대비 2023년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현황을 살펴봤다.

그 결과 전북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17개 시·도 중 돌봄교실(오후) 참여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과 제주는 돌봄교실(저녁)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2022년 대비 2023년 돌봄교실(저녁) 운영학교 비율과 참여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련 보고서는 전라북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도내 초중고·특수 행동강령책임관 역량강화 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행동강령책임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교 청렴의 핵심인 행동강령책임관의 역량 강화로 학교 자체 청렴교육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학교별 자체 교육을 진행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교육은 청렴공연(샌드아트)과 직장내 괴롭힘(갑질) 금지 등 청렴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연수에 참여한 행동강령책임관에게는 청렴 강의 교재를 제공해 개별 학교에서 청렴 교육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종합청렴도 중 청렴체감도가 높은 교육청을 벤치마킹한 결과 행동강령책임관의 역량이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더 청렴한 전북교육청을 만들어가기 위해 하반기에도 현장 요구에 맞춘 청렴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경영대학, 챗GPT 기반 AI 챗봇 서비스 오픈

전주대학교 경영대학은 9일 챗GPT 기반의 AI 챗봇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챗봇 서비스는 Open AI의 챗GPT를 기반으로 개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한계인 자체 언어정보 생성으로 인한 정보 왜곡을 보완해 경영대학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보다 정확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경영대학 이경재 학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춰 챗봇 서비스를 개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IT금융학과와 같은 첨단 학과를 보유한 경영대학의 강점을 살려 지속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소상공디지털 특성화대학 150명 수료생 배출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2022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5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은 150명 교육생들이 수료에 그치지 않고 수료 이후에도 수료 소상공인들에게 중소기업 지원정책사업을 소개하고 연계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2022년 수료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기업가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300만원,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에 200만원 확정됐다. 또한, 2023년 1기 수료생들의 온라인 판매 활동을 돕기 위해 라이브커머스 교육에 참여하도록 연계해 8명의 소상공인들이 라이브 커머스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센터장인 박광철 교수는 "수료생들이 언제든지 온라인 사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오픈해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매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주기전대학이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신규교사 임용 사전예고… 도내 교원단체 '말·말·말'

전교조 전북 "선발인원 늘려라"

"지난해보다 줄어… 교원 증원에 사실상 손 놓은 셈"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송육진)는 9일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신규교사 선발 축소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원정원과 신규교사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이날 2024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 교사와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의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안을 발표했다.

유치원은 지난해 22명에서 올해 18명으로, 초등학교는 지난해 45명에서 41명으로 10~20% 가량 줄고, 중등의 경우 뽑는 과목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주요교과에서 국어는 지난해 22명에서 올해 15명으로, 수학은 지난해 23명에서 올해 15명으로 줄어드는 등 감축 추세를 보였다는 것.

이는 전국단위로 보아도 지난해보다 초등은 453명이 줄었고, 중등의 경우 991명이 감소했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근 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심리치유가 시급한 상황에서 질높은 교육을 위한 기본조건인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는 커녕, 정규 교원 수를 줄이려 하는 교원 수급 정책을 규탄한다며, 신규교사 선발 인원을 대폭 늘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021년에는 코로나19 교육회복과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 속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내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는 이 법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인 교원 증원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전북교육청은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배치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 첫발을 뗐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를 유지·확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교총 "신규 교원 충원에는 뒷전"

"학령인구 감소 이유로 현실 외면해선 안돼"

전북교총(회장 이기종)는 9일 2024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안에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교육 당국은 학생수 감소라는 단일 지표에 매몰돼 적절한 교원정원을 확보하고 신규 교원을 충원하는 일에는 뒷전"이라고 주장했다.

2024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선발예정 인원 발표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초등교사 4명, 중등교사 25명, 유치원 교사 4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북교총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사와 학생 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제대로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학생맞춤형 교육,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을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학교는 학폭·우울 등 부적응·위기 학생 대응,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환경 구축, 학생 개별화 교육,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국가교육책임 강화 등 많은 교육적 요구를 받고 있다"며 "특히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나온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정보 관련 전담교원 배치는 교사별로 소규모 학교에 오히려 업무가 과중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36학급 이상 대규모학교 배치가 아닌 모든 학교에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 한명 한명을 제대로 살피고 교감해 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정규 교원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전북은 학급당 학생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수가 초등학교 823개 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15.9%, 중학교의 경우 1,241개 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57.9%, 고등학교의 경우(일반고 기준) 473개 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28%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점점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학생들과 더욱 교감하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와 같은 교육환경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북교총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열악한 교육현실을 외면해서는 공교육이 바로설 수 없고, 현재의 교육을 둘러싼 위기가 결코 개선될 수 없다"며 "교육은 효율만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교육현장의 질적인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유·초·중등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관점에서 교원 증원 방안을 마련하라"며 "이것이 현재의 교육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밑거름이자 첫 단추"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LINC 3.0 사업단, 울산과학대와 협약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기업협업센터(이하 ICC)는 9일 비전관에서 울산과학대학교 스마트팩토리 IC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 △LINC 3.0 성과 공유 및 산학연관 협력 확산 △ICC 관련 가족회사 협력 △유사 ICC간 공유·협업 △지역 거점대학으로 공유·협업·확산 및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양 대학은 LINC 3.0 사업 성과창출과 ICC 공유·협업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각 대학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주비전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ICC 유성구(전기공학과 교수)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의 ICC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 및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동 교육, 공유·협업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기자